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12)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1년도 하반기 충현장학생 선발

총 198명에게 지급, 봉사 여부를 철저히 심사
오늘 찬양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장학금 지급식

충현장학회에서는 2001년도 하반기 충현장학생 198명을 선발하고 오늘(19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장학금 지급식을 갖는다. 장학금은 대학원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20만원씩 지급한다. 하반기에는 전반기 장학생에게 그대로 수여하지만 결원자에게 한하여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추가로 선발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의 특징은 대학원, 대학생의 경우 주일 교회봉사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적합한 점이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계속 살려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교회가 젊은 시절에 봉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자신을 발견하며 보다 나은 천국인물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오늘 장학금 지급식에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기에 부모들이 필수 참석해야 한다.

대학원생(10명)				
김병민	장성민	정안나	염태산	이희주
이복순	김윤영	오경희	강민철	강진수

대학원생(6명)				
이종원	김성자	박지현	이종민	김현정
최지영				

대학생(46명)				
황경식	신정훈	신미란	박순미	백희진
이미현	장정은	최정민	정현민	최진현
정현우	김소희	이유미	박경옥	한유리
최은진	이수은	이덕용	이원정	이희수
이희수	변강석	김성정	박주영	조인선
안익희	임동계	홍은숙	양희옥	

고등학생(127명)				
김한나	김윤경	유종훈	강문구	이은혜
유미나	김진영	이보람	장우리	장혜선
박하얀	곽현우	한정아	김문철	이태오
송윤규	이대복	임병환	이동수	김지화

김희숙	신정철	김용진	허민경	김소연	문용범
김희정	이덕진	염혜선	전세환	이 석	이세라
김희진	김지혜	이유정	배지연	이우영	이석형
황은범	김용석	박용희	지효정	정주환	심재원
이정덕	오상덕	홍경화	조혜진	문선영	정지혜
김태은	표세진	김아름	조종현	전민정	조상미
김영은	이복희	김현정	이지영	유미정	홍보라
김보성	권태경	조보미	임혜진	이효진	김명희
이단비	박상진	김희연	구현은	장동수	이동진
장미라	김상혁	유송희	정은진	김구미	조한규
이태훈	유인식	이정림	장혜진	최용영	김효연
강신영	강준주	석경림	은은진	김대진	이찬희
하혜리	조용민	우재진	심지은	정우재	송준석
김지은	김소연	유성희	이정진	윤혜정	김지성
이정은	심호남	장성길	유나현	이봉근	김현정
양시은	김동식	최유환	이호은	한정은	채계희
강영준	권지연	김효진	김지은	김현수	한다정

동맹생(9명)				
강 진	우가민	김지혜	이대정	김예진
이상훈	김종미	이지연		박지영

"이 세대를 본받지 마자!"

2001년 제3차 청지기 훈련

9월 5일(수) ~ 7일(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인간이 쏟아내는 사상과 철학, 문명과 예술 그리고 문화와 삶의 양식들은 어느 시대든지 늘 못 영혼을 잠악하여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불같은 도전들이었다. 고대의 신화들과 헬라의 철학, 로마의 문명과 르네상스, 그리고 계몽주의와 현대의 과학사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도전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었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인간이성이 낡은 지식을 추구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인간의 영혼을 깊은 타락의 벼랑으로 밀어 넣곤 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과 기뻐하시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은 모든 시대를 향한 거룩한 외침이었다. 그의 선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취해야 할 태도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와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타락을 보았는가! 아니,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가?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바램은 얼마나 필요한가! 모이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순종하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또다시 뜨거운 감격의 시간을 맞이하자!

구분	9월 5일(수)	9월 6일(목)	9월 7일(금)
강사	김성관 목사	김성관 목사	김성관 목사
본문	로 12:2	마 16:13-18	고후 5:17
제목	세대를	이 땅위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는
본반되지 않자	아름다운다	새 삶을 창조하신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

48주년을 맞이하여 9월 9일, 주일 2부·3부 예배시간에

다음날 둘째 주일(9월 9일)에는 2부·3부 예배가 특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 교회는 48주년을 맞이하여 계교육육원칙의 소속 자녀들로 하여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다. 교회와 이러한 예배를 마련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림으로써 교회의 통일성을 느끼기 위함이다. 실제로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는 점점 없어진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마련된 가족 연합예배에 계교육육원칙에 속한 자녀들 둔 모든 가족들은 2부·3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참된 연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주차스티커 발부

외부 차량 장기주차 감당할 수 없어·각 교구별로 신청 및 발급

교회는 차량을 가지고 출입하는 교인들에게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다. 이 전과는 다르게 교회 주차위를 발달된 다세대 주택들이 새로 건축되고 교회 근처에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서부터 교회의 주차 공간이 주위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주차 공간으로 쓰이면서 장기주차 차량이 늘어나게 되자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주차 공간이 모자라는 일은 물론이고 장기주차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불미스러운 일도 자주 생기게 되었다. 이에 교회에서는 동문과 복문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교인들에게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게 하여 이를 전한다. 그러므로 주차스티커 발부는 무단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주일이나 주중에 필요에 의해 교인이나 방문자가 교회에 출입하고 주차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다.

혹자는 교회가 이웃사회에 그 정도의 기여도 못하느냐고 말은 하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도심의 빌딩과 주택가가 밀집된 곳에 위치하는 현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주차 스티커는 교구별로 차량현황을 조사하여 교구에서 발부한다.

신앙 질문

죄의 전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없다. 아무리 낙관론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 세계에서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죄로 말미암아 신봉하는 것은 인간과 피조계의 실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라고 탄식하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 피조물들조차도 구주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지은 죄가 왜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바울은 모든 인류가 본질상 선의의 자녀"이라고 선언하고 있다(엡 2:3). 본질상 선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을 가리키고 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Sin), 그 죄의 성향 때문에 또 다른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이다(Sin),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와 자범죄 혹은 행위죄라고 한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 이 시의 죄의 수를 속으로 차당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상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물을 기다릴 뿐이다.

공물에서 통성신인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며, 죽음 가운데서도 영하는 이들을 건지셨다. 본질상 선의의 원죄는 십자가에서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죄로 말미암아 신봉하는 것은 인간과 피조계의 실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라고 탄식하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 피조물들조차도 구주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김병태 (목사, 15교구지)

Christian Assurance

(1 John 3:19)

“We shall know by this that we are of the truth, and shall assure our heart before Him”

All people living on this earth are anxious for certainty. We want sureness. People continually question, “Are you sure?”, but find no assurance. Nothing seems sure anymore. Nations that are strong today may be defeated tomorrow. History shows us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est governments. What’s here today may be gone tomorrow. Many Christians are confused. They have uncertainty about their lives. But the sanctified are fully persuaded that they are God’s children and that He will keep them by His power. As a Christian, do you know who you are, where you stand, and where you are going? If you do, there is no uncertainty in your life.

In today’s chapter, John mentions who is a Christian and who is Jesus Christ. He also talks about where Christians stand and where they are going. In summation he says, “We will know by this that we are of the truth, and will assure our heart before Him” (v. 19). All Christians know that they are of the truth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in righteousness and love. This truth assures their hearts before God. Christians know who they are. They are sinners! They know where they stand and where they are going. They are sure of their knowledge because they believe in the Word of God.

Christians know Jesus Christ. The Bible tells us, “By this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ments”(1 Jn. 2:3). Obedience to Christ’s commandments is the down-to-earth test of our faith. Paul said, “For this reason I also suffer these things, but I am not ashamed;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I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until that day” (2 Tim. 1:12). Paul truly knew Jesus Christ,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How did Paul know? He asked the Lord who He was in Damascus. Jesus answered and Paul never doubted, even in the midst of his tremendous suffering and persecution.

Jesus onc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at the Son of Man is?” And they said, “Some say John the Baptist; and others, Elijah; but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Jesus said to him, “Blessed are you, Simon Barjona, because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is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Mt. 16:13-17). What a wonderful witness. When someone knows Jesus Christ, they are sure. Does this assurance come from parents, Sunday school, studying theology, learning the Apostles Creed, or reading the Bible? No! This confidence only comes from God the Father. Knowing Jesus Christ is a blessing given by God through His Holy Spirit. They Holy Spirit reveals God’s secret and makes one born again. Christians know that,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1 Jn. 5:12). Jesus Christ is that important!

So, if you know who Jesus Christ is you should know where you’re standing. Christians stand on spiritual ground. They know they are standing on spiritual ground from their experience. You have to have experience to know where your standing. “We know that we ha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He who does not love abides in death” (1 Jn. 3:14). Passing out of death into life is the most wonderful change a person can experience. This transformational experience takes us from the dirty grave to the spotless robe of righteousness; from Satan to Savior; from sin to salvation; from sadness to gladness; from the prison house of death to the freedom within the household of faith in the Kingdom of God. The assurance of Christians comes by this experienc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1 Cor. 5:17). Amen!

You’ve got to have this transformational experience if you know Jesus Christ. Your life has to change by the passing away of all things. Tradition, fame, wealth, the pleasures of now, all must go. Christians don’t live according to the style or manner of this present age,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Rm. 12:2). The problem with many people is that they want God and the world. They want to keep both, and that’s the cause of their uncertainty. The Bible specifically tells u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Mt. 6:24). Confusion and doubt come from living under two masters, “in reference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you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 and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and put on the new self,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Eph. 4:22-24).

People who live for the world are confused. When they look at the Bible they are perplexed. They’re not sure. They Word of God is clear. Faith is clear. Experience is clear. But people who serve two Lord’s are ambiguous about everything. They are not living in His dwelling. Those who live in Him know Him, “The one who keeps His commandments abides in Him, and He in him, We know by this that He abides in us, by the Spirit whom He has given us”(1 Jn. 3:24). Christians can obey each commandment because the Holy Spirit enables them through Jesus Christ. As long as you are alive you can’t do it! Only by giving up and living by faith is everything possible.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Rom. 8:16). Amen! When you give up,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and then the proof that you are of child of God is actualized. That’s the wonderful mystery of the Gospel.

Christians are sure where they are going.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1 Jn. 5:13). Your future is fixed. It’s a sure thing. “For we know that if the earthly tent which is our house is torn down,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2 Cor. 5:1). Are you sure of this? Christians are absolutely sure of this.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1 Jn. 3:2-3). “And when the Chief Shepherd appears, you will receive the unfading crown of glory”(1 Pet. 5:4).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o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T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1 Thes. 4:16-18).

Jesus promises us,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Jn. 14:3). Christ’s personal return is what Christians anxiously await. John’s vision describes our eternal state in this way,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passed away, and there is no longer any sea. And I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made ready as a bride adorned her husband”(Rv. 21:1-2). Yes!

The Christian knows who He is! He knows where He stands! He knows where he is going!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ruth, and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Him”(Jn. 14:6). Jesus shows us the way, truth, and life. We know with certainty this way, truth, and life just as Jesus knows. Christians are the only people on this earth who are certain about the future. By your faith if you become a Christian, you will be one who knows everything. Those who question will always have doubt. Uncertainty covers the globe. But as a real Christian you have assurance. You have certainty in Christ! 



김성권 목사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확실성 때문에 근심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정말 확실합니까?"라고 묻지만, 결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젠 더 이상 확실해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강대국들조차 언제 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역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화려했던 통치국가들의 흥왕과 몰락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에 있던 것이 내일이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치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9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세계와 사랑이라는 특성이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요일 2:3).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의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

함이라"(딤후 1:12)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알았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고,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합니다. 비록 엄청난 고통과 핍박 중에서도 말입니다. 한번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자를 누구라 하나?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마 16:13-17).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부모나 주일 학교에서 배우거나 신학연구나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성경을 읽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확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요일 5:12).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리에 대한 확신 -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면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이 영적인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존재해 있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기나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거하나니"(요일 3:14).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연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체험은 우리를 더러운 무덤으로부터 흠 없는 의의 옷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마귀에서 구원자에게로, 죄에서 구원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죽음의 감옥에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믿음의 집으로 거하게 하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이러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아멘! 여러

그리스도인의 확신

(요일 3: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관습·명예·물질·현세의 쾌락으로부터 떠남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흐름과 방법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만을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혼란과 의심은 두 주인 아래에서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쫓겨 가는 구슬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이라"(엡 4:22-24).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믿음과 체험도 분명하지만,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분을 압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자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3:24).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나를 포기하고 믿음에 의해 살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들어 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므로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내시라"(롬 8:16). 아멘! 여러분이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사실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제임, 부활, 새 세우려 살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들의 갈 모든 것만을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의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고후 5:1).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확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3). "그러하면 목자가 나타나실 때에 저희가 자녀가 아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4).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8).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귀환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바입니다. 요한의 비전은 우리의 영원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1-2).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는 하나님이며 어디에서 지니 않습니다. 그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도 압니다. 그에 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아셨듯이 우리도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미미에 대해 확신을 갖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분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질문을 던지는 자들은 의의만 가질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모든 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

2001년 여름 물도바 단기선교

물도바,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관심이
더욱고 있는 땅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행 16:6,10)

할렐루야!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도바 선교사역을 돌아보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7월 23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다음날 새벽예배(충현의 만나 7월호, 설교 중 민 9:15-23절의 구름기둥에 관한 내용 중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붉은 광장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크렘린을 공전 앞에서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녁 기차로 물도바에 입국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선교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행 16:6-10) 이번 물도바 선교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다음날 물도바에 입국하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첫 번째 사역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따라서 사역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1가정(개신교인 두 가정)의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들은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였습니다.

주일은 저희들이 머물던 가정 주위에 살던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

리는 모습을 보면서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스로 오랜 시간 걸려 두 번째 사역지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은 버스 속에서도 여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버려진 수감 여인과 삭개소를 찾아가셨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 10시경에 우크라이나 제르노블에 도착하여 기독교인이 된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과 복음의 중언이 될 것을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 부탁하고 마지막 사역지로 향하였습니다. 세 가정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할 때처럼 성령의 역사(행 10:44)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고 후 5:17). 우리는 그들의 얼굴과 영혼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심으로(행 16:14)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케 하신 것입니다.

물도바 선교 사역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을 뜻대로 모든 선교과정을 주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의 마게도니아의 영혼들이 '와서 주님을 도우라'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눈길은 땅끝의 버려진 한 영혼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정현민 목사)

소년부 전도전략

경고

김 영 기 (강도사, 소년부 지도)

영국 국교회의 청소년 사역과 전도의 전문가인 CPAS(Church Pastoral Aid Society)는 전통적인 주일학교의 존재가 위태롭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금부터 100년 전 영국 어린이들의 두 명 중에 한 명, 50%가 넘는 숫자가 주일학교에 출석했는데, 그 중의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주일학교 출석수는 현저한 감소를 보여 지금은 25명 중에 한 명만이 교회에 다닌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16년 뒤에는 어린이 100명 중에 한 명만이 주일학교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영국 교회가 이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죽어가는 주일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영국 교회가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주일학교 사역자로서 이 경고를 나에게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들을 보면, 이 경고는 결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더 이상 주일학교가 아니다. 주일학교 사역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영혼의 영적상태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에 몰두한다.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 봉사의 3D 영상으로 여겨질 만큼 사명감을 잃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교육이나 과외 공부에는 높은 열정을 발산하지만 신앙교육에는 무관심하다. 더욱이 교회 사역에서 어린이 사역은 거처가 없는 유치한 사역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의 실패대상으로 희생(7)되고 있다. 고단하다. 제각기 재능과 노력을 들여 주일학교 사역을 발전시켜보려 하지만 전 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무엇인가?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고등학생까지의 수는 대략씩씩 이상 장년 출석수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안 믿는 가정에서 나야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가장 기쁜 일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 중에도 주일학교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금이야말로 어린이 전도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주일학교의 구조조정이 없는 한 30년 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할지 모른다.

지금도 주일학교가 살아나도록 말씀으로 네일의 새대를 세울 헌신적이고 전 문성 있는 주일학교 지도자를 세우고, 교사들과 부모들을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훈련하며 교회 전체가 주일학교 교육과 전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가 분명하다.

11교구 농촌 전도를 다녀와서

아주 작은 사람

석 해 립 (대학부)

"믿음, 소망, 사랑 중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번 농어촌 전도를 통하여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랑일 것이다. 우연찮게 농어촌 전도 어린이 성경학교 창랑과 울음을 맡게 되면서 '내가 왜 이것을 맡았을까? 아니 왜 창랑과 울음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신듯 대답할때까? 라는 인간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도 농어촌 전도를 갔다와서 아니 성경학교 아이들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부터 이미 이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 그대로 어대장 사랑방만 얻은 막소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이다.

새종주교회에 도착하여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보며 나의 조그마한 사랑 베풀기가 시작되었다. 나를 처음 보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 나 역시 낯선 어른들의 얼굴을 대하며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 그러자 '교회에 잘 나오는 거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요' 등의 많은 대답들 가운데 '사랑이요'라는 한 아이의 소리가 크게 들렸다. 다시 그 아이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묻자 그 아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같이 나누어 주는 거요'라고 대답했다. 내가 들었던 어떤 말보다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말에 나의 일복진 영혼이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하신다.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렸다.

창랑이 들렸으면 다시 가르쳐 주고, 간식을 주면 흘렸으면 닭아주고, 서로 다들 때 화해시켜 주는 다른 선생님들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값진 물질적인 선물보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밖의 날씨보다 교회 안이 더 더운데도 불구하고 2박 3일간 성경학교를 빠져지 않고 즐겁게 나오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주는 집사님들을 보며 사랑이 무엇인지가 배웠다. 또한 전도하기에 힘쓰라는 성경말씀처럼 전도하기를 참 좋아하고 또 전도하자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사랑 배우는 것도 배웠다. 판단하고 깨닫는 것이 주님께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전파는 다름과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도 노력하는 나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일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주님, 하나님은 이미 참으로 귀한 주님의 어린 영혼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제가 베푼 사랑이 그들의 마음 속에 퍼져 언제나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피어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제 는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실 테니까요."

푸르른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



천상현 (청년1부)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작년에 이어 경기도 광
귀여리로 두 번째 여름
역을 다녀올 수 있었습
다.

이번에도 참 많은 것을
달게 하시더군요.

“과연 우리가 꼭 가야 하

“? 아니 내가 꼭 가야하
? 내가 가지 않아도,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군가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
니다. 누군가 했겠지요.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
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길, 내가 하길 바라셨
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그곳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대민봉사를 하고, 기타 다른 일을 얼마나 멋지게 해내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곳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그 자에 있었으며, 그 일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을 다스림 바로 깨우쳐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있어 근한 사람인가, 열마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자격도, 조건도,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그 자리로 인도해서 기어코 그 일들을 해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다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여름사역이 어땠는지 궁금하십니까? 청년1
에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보십시오. 저희에게

김지혜 (청년1부)

해마다 가는 여름
사역이지만 특별히
이번 사역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
을 깨닫는 중요한 계
기가 되었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신다는 것

△ 사진 오른쪽이 김지혜 자매

사역 마치는 날 비가 많이 와 걱정했지만 야외에서
작하니 비가 그쳐 기뻐했다. 사역하도록 하는 가장 이유에
는 측은 측은하다. 속속전도다. 속속전도 하기 전에는 맑은
씨앗과도 진도할 때 흙이 묻어 비가 내렸다. 누구나
비 내릴 때가 없이 않아 전도하기가 좋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날 사역은 비가 와야 할지도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
비를 받으며 전도를 해야 하는데 비가 내려서 시원
하게 전도하기가 오히려 주님께 감사되었다. 전도
때 몸과 마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사역을 시작하는 나
는 더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비를 내려 주시는 걸 보며
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사역하기 동안 비가 많은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사역하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 한 수 없었다는 것을 알
고 있었고, 모든 일을 마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가운데 생기는 구절
말씀보다 4장 13절이다. "내게 능력이 있는 자에
나 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이 말씀을 생각하
고 이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뒤에 기쁘고, 내일
는 더 다가오는 마음으로 사역에 돌입하고 싶다.

전도할 줄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왜하면 전한 전하여
받은 전도 받은 전도를 하여 하신 데서 내로서 시원
하게 전도하게 되어 오하시 주님께 감사드렸다. 전도
때들과 마음이 합일되 말라고 내역을 시작하는 날
때 때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비를 내리 주시는 것 같
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
사역하기 동안 내게 받은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
기하도록 기도해 주신 것 같도 할 수 있는 것을 알
되었고,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가운데 생가는 구절
법립서 3장 13절이다. "내가 주신 것은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이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 기쁘고, 내년에는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강원도 정선에, 주여 임하소서!

이 익 해 (첫년1부)



에기를 바니 전해 드리지 못한 것
이 지금도 안타까웁으로 남아 있
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해주시는 마음 율고요, 그분들을 위해
계시 기도해주시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마치고 다녔을 때만 할까 했는데
원주의 무사하고 할란과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경험
했습니다. 원주기독병원에 불이 있어 왔는데, 정선
에서 만났던 원주기독 병원 교사로 앉아 계셨던 집니다.
할란에게서도 편찮으신 것들을 받으려 멀리 나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부디 잘 만기워 하시고
다운데 와서 고생 많았다고 하시며 음주해서 편하셨습니다.
하늘님께서 그 할란이름으로 저에게서 또 만나게
하실것을 생각하니 내게서 영혼을 위해 쓰지 말고
기다라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역팀은 그곳에서의 단기 사역으로 그치지 않고 한달에 한번씩 계속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도 계속 함께 하셔서 그곳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의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대 황무한 정선 예미땅에 임재하셔서 그곳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역담방

죄로 물든 민족

1교구 3지역 총현2구역



이번에는 교회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1교구를 방문했다. 눈에 띈 것은 남성도들의 참석이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약간의 시간이 있어 이 집사님은 새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새벽기도회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 신용카드와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2분 전에 안마사실소에서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고 경찰관과 함께 그곳을 덮쳐 도둑을 잡았다고 했다.

'죄로 물든 민족'이란 주제가 오늘의 탐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을 열적으로 흔타케 한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나뭇을 순교케 하는 악한 모략을 저질렀다. 목자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개의치 않는 장로와 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기에 저지를 수 있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다. 구역장은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강조했다. 새벽의 도둑, 아합과 이세벨, 장로와 귀인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았다.

문 권찰님은 신학적 삶에 도움을 주는 구역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역 구성원 모두가 자기 위치를 지키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강조하였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옆에서 주었던 많은 도움이 은혜가 되었다는 권찰님은 구역장과 부지역장의 역할이 구역을 성숙케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권사님의 간증과 신앙의 대화 속에서 구역원들의 교제가 더욱 깊어졌다. 모이기를 힘쓰는 이 구역에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길 바라면서 배부는 손길에 충만히 채워지길 기도한다.

(임용개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에 경' 성도를 소개합니다

역삼동에 살고 있으며 아들만 두 명 두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언니(김애자 성도)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니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지난 4월에 고3인 아들이 친구 오토바이를 타다 크게 다쳤습니다. 3월만에 의식은 되찾았으나 다리 골절은 아직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련도 감당할 수 있을만큼 주신다는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부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으며 아들의 빠른 치료와 쾌유를 위해, 그리고 저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심 현 숙' 성도를 소개합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저 이렇게 네 명입니다. 안양에 살고 있으며 직장 다니고 있고, 성격은 명랑하고 활발한 편입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오면 낯은 웬지 모르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나온 새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에 반갑게 맞아 주셨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으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숙신 새가족부 통신원)

+ 양요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아프리카 R국에서 사역하는 최은아 단기평신도 선교사가 말라리아로 힘 들어하고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최은아 단기평신도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여러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인문 중심의 교회사 순례〉-제록)

순결의 열망

"주름 투성이의 내 이마는 형광어진 흰 머리로 덮여있고 내 뺨은 소가죽처럼 속 들어졌다". 제록이 노년에 묘사한 자기 모습이다. 이렇게 늙도록 그는 사막에 있었다. 지금은 유고슬라비아의 영토가 된 로마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로 자리잡았다.

제록의 젊은 시절은 어디서나 흔치 볼 수 있는 보통 청년의 삶이었다. 나이 이십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았다. 잠깐 있으면 없어질 세상의 즐거움이 그가 추구하는 전부였다. 그러나 그의 가장 귀한 친구가 세례를 받은 뒤에 성직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자기 친구가 '논처럼 희고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자신은 '더러운 입술과 그의 그로 더러운 손발로' 죄 속에 빠져 있었고 이제 불의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가 자신의 음란한 마음을 속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순교자들의 유골을 안치한 지하 동굴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장차 올 영원을 느꼈다. 그후 그는 로마를 떠났다.

그의 시대는 어지스톤, 크리스트로스, 암브로시우스 등 고대의 가장 위대한 교부들의 시대와 겹친다. 그러나 가장 발달한 문화 속에서 가장 사치스러웠던 로마제국 말년의 시인인 제록은 사막에서 안식을 찾는다.

그는 사막으로 달려가서 시리아의 은둔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는 조그만 굴에 들어가 자루 속에서 자면서 5년간 참회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다. 물과 요리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맨발에서 지내는 동안 그의 피부는 아프리카 사람처럼 검게 되었다. 들짐승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는 뼈를 땅에다 두드렸다.

그가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삶이었다. 제록은 가능하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상대방만을 순결하게 사랑하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려 했다. 그는 그렇게 사막에서 늙어갔다. 그가 늙도록 절어온 길은 순결을 향한 뜸부림이었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동'에서)

다음주일 전승

203장 '나 행한 것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의 열매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선물과 성령의 새줄을 하심으로 하셨습니다"(딤후3:5). 이 두 말씀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360여년간 계속 이어진 가문의 목회사역을 통해서 호메이시어스 보배어 목사님은 늘 영력을 겸비한 설교자로 소문이 있었다. 그는 60여년간의 전승사를 지녔는데, 이 전승은 그의 목회사역 절정기에 이를 때인 1861년에 작성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 전승은 은혜로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 템포(박자의 빠르기)가 불규칙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승의 템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아 보이지만,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를 같이 읊미하지 않고 읊음을 따라(줄이) 노래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페르마타(음을 2-3배 길게 함)...죄 벗지 못하네' 나의 지성과 경험 그리고 육신적인 능력과 힘으로 열심히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를 되돌아보면서 페르마타 부분에서는 말장 울어서도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잠잠 감격해드립니다.

3절 반복부의 '내 고든 근신과 내 모든 두려움 수 묻혀서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순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이름 불러서도 상이 없습니다(가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감사를 올게 됩니다. '그 사랑 키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아멘.'

(전창원위원회)

저는 영아부에서 예수님 만나요



김 남 옥 (집사, 1교구)

저와 우리 아이 유나는 영아부를 참 좋아해요. 제가 영아부에 가자고 하면 유나는 좋아하는 반응을 바로 보이지요. 지금은 유나가 만 2살이 넘었지만 몇몇이때부터 영아부를 다녔어요. 유나가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영아부 갈래요'라는 노래를 지어서 불러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노래만 불러주면 영아부 가는 줄 알고 좋아하며 자기가 입고 갈 옷을 준비해요.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영아부라는 부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아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토요일 저녁이면 내일 영아부에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영아부 예배를 통해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우리 주님은 역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찬양을 부르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예수님이 주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으며 한번 더 감사해요. 또 그런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오지요. 말은 아직 잘 못 하는 어린 아이 유나도 정성을 다 해서 울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말씀 시간에도 한 마디라도 더 들도록 집중을 시키지요. 유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성령님, 찬양, 사랑이라는 말들이 일생 동안 반복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유나로 하여금 찬양을 기뻐하게 하고요 아직 아이지만 예배를 알게 하셔서 예배시간에 절제하게 하셔요.

영아부에서 부르는 찬양이 참 좋아서 악보들을 모아서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집에서 자주 부를 수 있도록...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빨리 영아부에 가 보세요. 정말 좋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되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기에게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가세요.

영아부와 함께 하는 예수님, 사랑해요! 영아부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성신들, 사랑해요!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박 중 윤 (유아부 교사)

먼저 유아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유아부 친구들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유아부 어린이들이 보고 싶어 주일이 기다릴 때면 천사같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곤 합니다. 한 주일이 다르게 어린이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또한 성장하기를 바란답니다. 유아부에서의 많은 기억 중, 기도로 준비한 여름성경학교 동안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전도사님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초보종교한 어린이들의 눈빛을 보며 이 어린 영혼들이 말씀에 갈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절 동안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을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동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믿음도 점점하고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적 유대인 자녀교육'을 읽고 신앙의 세대차이를 막아야 한다

김 단 용 (양로, 중동1부장)

AD70년에 나라를 잃고 전세계에 흩어져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만인 1948년에 다시 모였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흩어졌던 그들이었지만 히브리어는 물론 전통적인 사상 및 생활습관 등이 모두 같았다. 이는 그들의 중심 교육상과 방법이 구약성경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인의 세대차이는 너무나 심각하다. 우리의 1세대와 2세대간에 별 다른 일상문화와 자식은 신앙의 세대차이로까지 변じ고 있다. 우리는 평양신학교에서 배워내려오던 믿음, 절제있는 신앙과 생활습관이 자손대대로 지켜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즉 신앙의 세대차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말씀에 기초한 신본주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유대인의 자녀교육자세가 바로 성경적이다. 그들은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킨다. 즉 자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교육시킨다. 이것이 개인과 민족의 신앙의 세대차이를 막는 비결이었다.

우리의 현대교육은 학교나 학원이 전부인 줄 알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개발해 주고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녀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유대인은 부모 자신이 신생아이다. (신 6:49)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도 자녀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르친다. 지금 많은 부모들이 성경에만 성경을 쓴 나머지 그 외곽의 몇 개의 학원이 하여 아이들이 혹사하는 경우가 많다. 공부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확실히 성경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어떤 과외보다 좋은 교육방법임을 권하고 싶다.

나와는 그리스도의 편지



믿음의 순종

인듯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음을 주님께 감사해. 그리고 엄마! 정말로 사랑해."

언니는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숨을 내쉬고 있는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다.

늦게 시작한 공부 때문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도, 세상에 출세하여 어머니의 자리가 되지도 못했던 언니.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게 알기필것과 제대로 못 하는 모습을 보여 어머니께는 걱정거리만 되어 드렸던 언니. 밤하늘이던 전도 사역이다 선교사역이다 하면서 한시도 어머니 곁에 있지 못 했던 언니였지만, 위임으로 날로 쇠약해지는 어머니를 떠나야 했던 언니 바를 역시 한시도 못할 수 없었다. 그래도 언니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늘 순종하여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다.

사역을 나가면서도 언니는 어머니를 모실 수 있기를 기도했고 신실하신 주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드디어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었다. 주님의 은사로, 언니는 어머니를 주님의 몸으로 보내 드릴 때까지 곁에서 정성을 다해 식사도 차려 드리고 찬송도 불러 드리며 말씀도 읽어 드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는 언니. 때론 곁을 수 없는 혈육의 정이 가슴 아프게 하지만, 나의 부모보다도 나의 자식보다도 더 크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기에 언니는 모든 것을 감사한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기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언니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간다. 언니! 주를 향한 언니의 순종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해!

(임정심 기자)

심화의 생

에스겔(Ezekiel)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예헤즈겔'(Yehhezqel)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사독' 가계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부시'(Buzi)에게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1:3, 40:46, 44:15).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사탕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두 가지의 커다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24:1, 15~18).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성령 가운데 부어졌고(1:28, 3:12, 23, 8:4, 9:3, 10:4, 18, 19, 11:22, 23, 24:21, 25, 26:20, 27:10, 28:22, 39:13, 21, 43:2, 45, 44:4), 그는 비탄 가운데서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통치자가 임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됩니다(9:3, 6, 7, 10:3, 4, 18, 23:39, 40:45, 41:20, 25, 42:8). 그럼 이제부터 에스겔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에스겔은 시대적인 격변기에 살았습니다. 국외적으로도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앗수르, 옛 명맥을 회복하려는 바빌론, 그리고 강력한 국가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바빌론이 세력 다툼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남쪽의 유다가 바빌론에게 1, 2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였는데, 1차 포로는 B.C 6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2차 포로는 8년 뒤인 B.C 59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때에 에스겔이 여호아진과 일한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열강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요시아'(B.C 640~609, 31년 통치) 이후로 '여호야קים'(B.C 609, 3개월 통치), '여호야김'(B.C 609~598년, 11년 통치), '여호야긴'(B.C 598~597, 3개월 통치), 그리고 '시드기야'(B.C 597~586, 11년 통치)에 이르는 불안정한 정국을 거쳐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이러한 배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23:29~37과 24:1~20, 또는 역대하 35:20~27, 36:1~21). 이렇듯 에스겔 역시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성전'에 대해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현 목사·출판국 지도)

교회 소식

모임

1. 장로 월요새끼기도회
일시: 20일(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회교대별기도회
일시: 21일(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장로 수요일 기도회
일시: 22일(수) 주일 3주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4. 2교구 연합예배
일시: 31일(금) 10:30
장소: 배나리울

비전 전도회

1. 바울 4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복자관 지하2층
2. 바울 5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2층(신문가정부실)
3. 바울 7차의 열매회
일시: 25일(토) 14:00
장소: 통영수하실
4. 바울 9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강림리울
5. 바울 10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복자관 지하1층
6. 바울 12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영아부실
7. 바울 13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 장소
8. 바울 14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14호
9. 바울 15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배나리울
10. 바울 16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14호
11. 베드로 7차의 열매회
일시: 23일(수) 19:30
장소: 관전신앙당
12. 베드로 8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강림리울
13. 베드로 10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복자관 지하1층
14. 베드로 11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212호
15. 베드로 1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구모임장소
16. 요한 8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통영 2층(교육회관비서실)
17. 요한 14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19:00

- 장소: 박종률 회장대(266-2516)
18. 한나 13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314호
19. 한나 15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박나리울
20. 에스더 1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 장소
21. 에스더 2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306호
22. 에스더 6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신촌로(학사출신(스라엘가들))
23. 에스더 7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아랜울
24. 에스더 8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 장소
25. 에스더 9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강림리울
26. 에스더 107차의 열매회
일시: 20일(화) 10:30
장소: 통영수하실
27. 에스더 11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복자관 지하1층
28. 에스더 12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강림리울
29. 에스더 13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배나리울
30. 에스더 14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14호
31. 루디아 17차의 열매회
일시: 20일(화) 10:30
장소: 영아부실
32. 루디아 187차의 열매회
일시: 21일(화) 11:00
장소: 배나리울
33. 루디아 197차의 열매회
일시: 21일(화) 11:00
장소: 강림리울
34. 루디아 20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배나리울
35. 루디아 217차의 열매회
일시: 21일(화) 11:00
장소: 강림리울
36. 루디아 227차의 열매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314호
37. 루디아 237차의 열매회
일시: 21일(화) 11:00
장소: 통영수하실
38. 미리야 67차의 열매회
일시: 28일(화) 11:00
장소: 영아부실
39. 미리야 687차의 열매회
일시: 21일(화) 11:00
장소: 통영수하실
40. 미리야 137차의 열매회
일시: 21일(화) 11:00
장소: 통영수하실

일시: 오늘 12:10
장소: 영아부실

주 소 변 경

1. 김창국 성도
장남구 역삼동 67번지 301호

발 세

1. 이영희 퇴교생 (회대한 집사의 모친, 유산적 집사의 딸, 7교구) / 6월 말세, 8월 1일
2. 최진호 퇴교생 (회대한 집사의 부친, 전종원 장로의 매형, 7교구 성령구역) / 11월 말세, 13일 장례

결 은

1. 105호 권(이영희) 집사, 김나경 권사의 아들, 부산세일교회)와 이은은 장(이계숙) 집사, 황선배 집사의 딸, 6교구) / 25일(토) 13:00 연세대 통영로
2. 김창국 권(이영희) 집사, 김나경 권사의 아들, 부산세일교회)와 이은은 장(이계숙) 집사, 황선배 집사의 딸, 6교구) / 25일(토) 14:00 한국학사출신(배나리울) (255-2700)

사 무 곡 직 원 모 집

1. 근무직 및 자각
식당근무직
- 50대 이하의 여자 세제교인
2.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자기소개서
③ 교인인 당회장 추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3. 기간 8월 31일까지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총원교회 사무국
(장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2001 여름반기전교 평가회

대상: 단장, 지도, 총무, 회계
일시: 21일(화) 18:00
장소: 칼빈교회

안수집사 부부 여름 수련회

일시: 21일(화) - 22일(수)
장소: 춘천기도원
21일 09:30교회에서 출발

2001학년도 총원경로대학
2학기 학생 모집

1. 2학기(9.6-11.28)13주
2. 교과대상: 연령 19세 이상인 자로서
가. 본교의 성도 중 지원자
나. 타교의 성도 중 지원자
다. 지역사의 거주하는 주민 중 지원자
3. 수시접수
주 1회 4시간 수업: 매주 목요일(정숙은 교회에서 제공)
4. 등록비: 대학기 1인당 20,000원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통(교육국에 비치)
나. 주민등록등본 1통(4학기 등록자는 제외함)
다. 반말합란 사진 1장(4학기 등록자는 제외함)
6. 서류 제출기간: 2001. 8.12 - 9.6
7. 제출처: 교육국, 경로대학 사무실(교육관 208호)

예 배 안 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0(이웃사랑예배)	본당
V	오전 3:00	본당
VI	오전 5:00	본당
VII	오전 7:00	본당
VIII	오전 9:00	본당
IX	오전 11:00	본당
X	오전 3:00	본당
XI	오전 5:00	본당



총원증보의상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통상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에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 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총원교회가 에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총원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 목사

- | | | | | |
|-------|-------|-------|-------|-------|
| 이동성 | 이정현 | 정현인 | 김동환 | 차병준 |
| 교구장 | 2교구 | 12교 | 기독교 | 신학교 |
| 김재현 | 서정현 | 정재현 | 이준경 | 박인기 |
| 52교구 | 2교구 | 52교구 | 52교구 | 52교구 |
| 이성기 | 류병호 | 노경록 | 이종철 | 김정훈 |
| 103교구 | 103교구 | 103교구 | 103교구 | 103교구 |
| 이영진 | 김종성 | 송진환 | 이우근 | 이우진 |
| 122교구 | 122교구 | 122교구 | 122교구 | 122교구 |
| 안창대 | 박영준 | 나광영 | 정진호 | 김동덕 |
| 132교구 | 132교구 | 132교구 | 132교구 | 132교구 |
| 이성욱 | 고광환 | 신성식 | | |
| 142교구 | | | | |

■ 찬양감독 장영구

■ 강도사 김경기 소부

■ 여전도사

- | | | | | |
|-------|-------|-------|-------|-------|
| 정연희 | 김정자 | 송향자 | 신동자 | 윤순익 |
| 142교구 | 52교구 | 12교구 | 52교구 | 12교구 |
| 김정자 | 한영준 | 김정자 | 홍순애 | 이우근 |
| 52교구 | 112교구 | 122교구 | 52교구 | 42교구 |
| 김정자 | 안태준 | 최효진 | 박명자 | 김정연 |
| 82교구 | 72교구 | 152교구 | 122교구 | 102교구 |
| 조옥자 | 강덕철 | 김정신 | 장영구 | 최문실 |
| 208교구 | 162교구 | 대학부 | 청년부 | 132교구 |

■ 교정전도사 박영덕

■ 선교사

- | | | | | |
|-------|-------|-------|-------|-------|
| 정연희 | 김정자 | 송향자 | 신동자 | 윤순익 |
| 142교구 | 52교구 | 12교구 | 52교구 | 12교구 |
| 김정자 | 한영준 | 김정자 | 홍순애 | 이우근 |
| 52교구 | 112교구 | 122교구 | 52교구 | 42교구 |
| 김정자 | 안태준 | 최효진 | 박명자 | 김정연 |
| 82교구 | 72교구 | 152교구 | 122교구 | 102교구 |
| 조옥자 | 강덕철 | 김정신 | 장영구 | 최문실 |
| 208교구 | 162교구 | 대학부 | 청년부 | 132교구 |

■ 협력선교사 최효진 (이우근) 장기교회 (이우근)

2001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교육관 407호	세례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이종성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6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거주 찬양예배, 분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강림리울)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연도지
666	유선정	19	청년부		683	한국국	3	종동부	
667	서문상	8	청년부		684	이미진	19	고등부	
668	박성준	8	청년부		685	한나현	19	고등부	김관미(4)
669	송성철	19	고등부	이윤형(9)	686	김정호	19	고등부	
670	김승진	19	고등부		687	김효진	19	고등부	
671	반병진	19	대학부		688	김기호	19	대학부	박대복(1)
672	성명환	13	청년부		689	박근배	19	청년부	
673	윤지희	19	청년부		690	유정남	19	청년부	
674	김진관	19	청년부		691	이봉현	19	청년부	
675	송진영	19	청년부		692	나선경	1	교역자	
676	국상환	4	청년부	전귀환(8)	693	김기호	1	교역자	
677	김성희	4	청년부	전귀환(8)	694	김정호	1	교역자	
678	이윤진	9	청년부		695	장영미	1	교역자	
679	신봉관	9	청년부	김관현(14)	696	박성희	1	교역자	
680	배지은	14	청년부		697	김종호	1	한나	
681	배경희	15	청년부		698	양성재	1	교역자	
682	배남숙	17	유아부		699	장수진	192	청년부	